

사금갑(射琴匣) 설화의 역사적 이해 - 「화랑세기」 관련 기록과의 대비 검토 The Sagumgap tale and the queen`s dethronement

저자 (Authors)	김태식 Kim, Tae-Shik
출처 (Source)	민속학연구 , (12), 2003.6, 103-138 (36 pages) 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 (12), 2003.6, 103-138 (36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99562
APA Style	김태식 (2003). 사금갑(射琴匣) 설화의 역사적 이해. 민속학연구, (12), 103-13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2 15:1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사금갑(射琴匣) 설화의 역사적 이해

- 『화랑세기』 관련 기록과의 대비 검토 -

-
1. 문제제기
 2. 궁주와 왕비
 3. 『화랑세기』가 폭로한 사금갑 사건의 실상
 4. 결론
-

김 태 식(연합뉴스문화부 기자)

사금갑(射琴匣) 설화의 역사적 이해

- 『화랑세기』 관련 기록과의 대비 검토 -

김 태 식*

1. 문제 제기

가. 안정복의 사금갑 설화 해석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이 찬한 『동사강목(東史綱目)』(20권 20책)은 강목체(綱目體)라 해서,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유가적 포폄(褒貶)에 서술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주목해 지금까지 학계의 관심은 『동사강목』의 사학사적 의의, 특히 조선 실학의 발생 및 전개와 관련해 그 위치를 매기는데 집중돼 왔다.¹⁾

이는 아마도 안정복이 『동사강목』을 찬할 때 전대의 사서, 예컨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을 기초로 사건을 서술했기에 새로운 사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동사강목』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별도의 사서(史書)로는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실제 『동사강목』은 한반도 고대사의 경우 그 서술 소재를 거의 절대적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지하고 있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면 『동사강목』에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이 더러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문화부 기자

1) 이런 경향을 대표하는 의욕적인 연구자가 강세구라고 할 수 있다. 안정복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이 분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그는 안정복과 그의 사상에 대한 연구성과를 이미 다음 두 권의 단행본으로 정리해 냈다. 1994, 『동사강목 연구』, 민속문화사; 1996, 『순암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 연구』, 혜안.

예컨대, 신라에 풍월주(風月主)가 대표하는 화랑도가 설치된 시기에 대해 『동사강목』은 진흥왕 즉위 원년(540)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 시기를 『삼국사기』는 진흥왕 재위 말년인 37년(576)이라 하고 있으나,²⁾ 이것이 불합리함은 이미 『삼국유사』에서 지적되었다.³⁾ 그럼에도 안정복은 풍월주 설치가 진흥왕 원년이라고 해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을 『동사강목』에서 주장하고 있다.⁴⁾ 이 한 가지 사례는 『동사강목』을 단순히 전대의 사서를 베꼈기 때문에 사학사적인 의미 외에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다는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케 한다.

이러한 또 한 가지 사례가 소위 사금갑 설화에서도 확인된다. 『삼국유사』를 필두로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 등지의 문헌에 전하는 이 설화에 대해, 안정복은 전대 문헌에서는 설화성 짙은 이야기로만 전하는 이를 역사적 사건으로 전환해 『동사강목』 「제 2 卜 임신년 신라 소지왕 14년(488) 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봄 정월에) 계림이 왕비 선혜를 복주했다. 왕비가 중과 몰래 정을 통했기 때문이다. [鷄林誅其妃善兮夫人。妃與僧潛通故也。]

안정복의 이러한 해석을 왜 독특하다 하는가? 무엇보다 안정복의 논조가 막연한 추정이 아니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듯 아주 강한 어조로 단정하고 있다. 왜 이러한 해석을 안정복 사후 2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다시금 음미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우선 사금갑 설화 혹은 사금갑 사건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

나. 사금갑 설화

사금갑(沙金甲)이란 ‘금갑을 쏘라’는 뜻으로, 명령어 구문이 제목으로 정착한 희귀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갑(鎧甲)은 악기의 일종인 거문고를 넣어두는 공간이나 구조물을 말한다. ‘사금갑’ 설화는 『삼국유사』 「기이(紀異)」 권 제 1에 ‘사금갑’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2) 『삼국사기』 권 제 4(신라본기 4) 진흥왕 37년 조.

3) 「탑상(塔像)」 제 4, 『삼국유사』 권 3, ‘미륵전화(彌勒仙化) · 미시랑(未尸郎) · 진자사(眞慈師)」.

4) 물론 이러한 언급은 조선초기에 편찬된 편년체 사서들인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에 이미 보이고 있어, 안정복이 이들 사서를 참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신라) 제21대 비처왕[소지왕이라고도 한다.] 즉위 10년(488), 왕이 천천정(天泉井)으로 행차했다. 이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더니 마치 사람처럼 말을 했다.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잘 살피시오.” [혹 이르기를 신덕왕이 흥륜사에서 행향(行香)하러 할 때 길에서 여러 마리 쥐가 꼬리를 물고 있음을 보고, 괴상히 여겨 돌아와서 점을 치니 이튿날 먼저 우는 까마귀를 찾으라 했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왕이 기사(騎士)를 시켜 (까마귀를) 쫓게 했다. 기사가 남쪽으로 피촌[지금의 양피촌이니 암산 동쪽 기슭에 있다.]에 이르러 돼지 두 마리가 싸우는 장면을 한동안 보고 있다가 문득 까마귀 간 곳을 잃어버리고 길가에서 헤매고 있었다. 이 때 한 노인이 물 속에서 나와 글을 올리니 곁에 이렇게 씌어 있었다. “이것을 떼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요, 떼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기사가 돌아와 왕에게 (편지를) 드리니 왕이 말했다. “두 사람이 죽느니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일관(日官)이 아뢰었다. “두 사람이란 백성이요, 한 사람은 임금입니다.” 왕이 그럴 듯하게 여겨 (편지를) 떼어보니 ‘사금갑(射琴匣. 금갑을 쓰라)’이라 적혀 있었다. 이에 왕이 궁으로 들어가 거문고 갑을 향해 활을 쏘니 그곳에서는 내전에서 분향 수도하던 승려가 궁주(宮主)와 몰래 간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곧 사형됐다. 이 때부터 나라 풍속에 정월 상순 돼지·쥐·까마귀 날에는 모든 일을 조심해서 감히 움직이지 않았으며, 16일은 오기일(烏忌日)이라⁵⁾ 해서 찰밥으로 제사를 지냈으니 지금도 이를 행하고 있다. 방언에 이것을 달도(怛怛)라 하니 슬퍼하고 근심해서 모든 일을 꺼리어 금한다는 뜻이다. 그 못을 일컬어 서출지(書出池)라 한다.

이 설화는 불교 승려와 궁주(宮主)가 궁중에서 간통하다 왕에게 들켜 둘 다 복주되었다는 이야기가 씨줄과 날줄을 이루고 있다. 이 사건에 까마귀나 쥐, 돼지 같은 동물이 의인화되어 출연함으로써 그 설화성은 더욱 짙어진다.

이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에 대해 『삼국유사』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위 사금갑 설화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자비왕 재위 10년(488) 정월 16일로 추출할 수도 있다.⁶⁾ 왜냐하면 이 날을 ‘오기일(烏忌日)’이라 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유심히 기억해야 한다.

다. 기존 연구성과

이 사금갑 설화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다.⁷⁾ 특히 이 설화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5) 혹자는 烏忌라는 말을 신라어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는 글자 그대로 까마귀를 꺼린다는 의미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까마귀를 꺼린다면 문장 구조가 忌烏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烏忌가 원래 말이라면 까마귀가 꺼린다는 뜻이 된다.

6) 요즘 통용되는 각종 삼국유사 번역 혹은 주석서는 한결같이 사금갑 사건 일자를 정월 15일이라고 하고 있으나, 조선시대 판본에는 분명히 정월 16일로 되어 있다. 이는 이미 신증원이 지적한 바 있다.

시점이 신라로서는 불교 도입 초반기라고 할 수 있고,⁸⁾ 마침 궁주와 함께 복주된 남자가 내전(內殿)에서 분수(焚修)를 하는 불교 승려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에 집중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거의 예외없이 신라의 불교 도입 및 그에 따른 불교 사상과 신라 전통사상과의 충돌이라는 측면에 집중됐다. 신라에서 불교 공인은 공식적으로 법흥왕 15년(528)이라고 하지만, 이 사금갑 설화대로라면 이미 그 이전 소지왕(비처왕) 무렵에 신라에는 왕실에 내전분수승(內殿焚修僧)으로 대표되는 불교세력이 침투해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특히 이 설화에서 궁주와 내전분수승을 죽음을 몰아가는 일관(日官)이란 존재를 신라 전통사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아 불교세력과 투쟁하는 과정으로 보았던 것이다.⁹⁾

이외에 이것이 설화라는 측면에서 국문학적 연구접근도 많은데 황패강이 대표적이며,¹⁰⁾ 최근에는 전성운이 이 설화를 구비서사물로 규정해 시대별, 텍스트별로 그것이 수용되고 변이되는 과정과 의의를 짚어보기도 했다.¹¹⁾ 또한 민속학적인 측면에서도 사금갑 설화는 대단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세시풍속의 유래가 여기에 함유돼 있는데 말미암은 현상이라 할 것이다.¹²⁾

필자는 이러한 선행 연구성과를 계승 혹은 비판하면서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도대체 이 설화가 어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을 해명하고자 한다. 설화란 실제 존재한 사건과 인물을 토대로 구축되는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으니 사금갑 설화 또한 예외가

7) 이 설화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수학, 1985, 「사금갑 설화연구」, 『人文硏究 제7권 제2호』.

신종원, 1997, 「삼국유사 2개조 역주」, 『미천목정배박사화갑기념논』, 미천목정배박사은법학회.

신종원, 1977, 「신라불교의 전래와 그 수용에 대한 재검토」, 고려대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전성운, 1999, 「사금갑 이야기의 수용 양상과 서술 태도」, 『한국민속학 31』

8)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및 각훈의 『해동고승전』 등지의 문헌기록을 종합할 때 신라에 불교가 처음 도입된 것은 제19대 눌지왕(재위 417~458) 때이며, 이러한 불교가 공인된 것은 23대 법흥왕(재위 514~540) 재위 15년(528), 이른바 이차돈 순교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금갑 설화의 시간적 배경인 비처왕 시대는 신라의 불교 도입 초반기라고 해도 대과가 없을 것이다.

9)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는 연구성과로 신종원, 1992,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와 최광식, 1994,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를 들 수 있다.

10) 황패강, 1974,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1) 전성운, 앞의 논문.

12) 민속학적인 측면에서만 사금갑 설화를 전문적으로 접근한 연구성과를 필자로서는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각종 민속학, 특히 세시풍속 관련 각종 개론서로 이 설화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드물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설화는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1849), 김대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烈陽歲時記)』(순조 연간?)와 같은 조선시대 세시풍속기는 물론이고 조선초 왜관문학인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와 찬술시기와 작자가 분명치 않은 조선 후기 야담집 『기문총화(紀聞叢話)』,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정조 연간), 민주면(閔周勉)의 『동경잡기(東京雜記)』(1669) 등지의 문헌에 보이기 때문이다.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금갑 설화를 구축한 실제 사건은 무엇인가?

안정복을 다시금 주목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나아가 작금 한국고대사학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화랑세기』 필사본을 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까닭도 뒤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안정복이 『동사강목』에서 주장한 것, 다시 말해 비처왕비 선혜(淳分)가 내전분수승이라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불교 승려와 간통하다 복주된 사건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면, 종래 사금갑 설화에 관한 연구는 재검토를 요하게 된다. 나아가, 필사본 『화랑세기』에는 이러한 안정복의 견해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포착되고 있기에, 이 문제는 필사본 논쟁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여하한 결과에 따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금갑 설화를 염두에 두었음이 명백한 안정복의 주장이 이후 근 200년 동안이나 거의 망각되다시피 한 사실이 필자는 기이할 뿐이다. 다시 말해, 사금갑 설화는 많은 주목을 끌었음에도 이것을 비처왕 정비인 선혜부인 복주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인물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1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¹³⁾ 그가 『화랑세기』 필사자로 지목되는 남당 박창화(朴昌和)라는 인물이다. 이 사금갑 설화가 필사본 『화랑세기』와 접점을 이루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 근현대사가 박환무는 베일에 쌓여있던 박창화라는 인물이 1920~30년대에 활약한 역사가였음을 입증하는 그의 논문 3편을 발굴 공개했다.¹⁴⁾ 박창화는 「新羅史について(二)」에서 “신라 비처왕(소지왕-인용자)…중략…10년 정월에 왕비 선혜부인(淳分夫人)과 분수승(焚修僧) 사이에 밀통(密通) 사건이 폭로됐음은 역시 신불(神佛)간 다툼의 하나였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박창화는 별 다른 근거 제시나 의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금갑 사건에 비처왕비인 선혜부인이 관련됐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13) 박창화 외에 조수학 또한 이 설화를 비처왕비 선혜부인(淳分夫人)과 연결시키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조수학, 1985, 앞의 논문. 하지만 조수학은 이 설화에 등장하는 궁주(宮主)에 대해 “왕비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근거로 궁주를 왕비일 것으로 보았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궁주(宮主)라는 말 자체를 왕비(王妃)의 다른 표기로 보았을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추정을 조수학은 『명위보(明衛譜)』라고 하는 문헌에 상당히 기대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명위보』란, “만력(萬曆) 38년(1610)에 이정구(李廷龜)가 서문을 쓴 책으로 신라조~중엽 사이의 신라 8성(姓)의 시조 및 계통을 적은 보책(譜冊)”이다. 조수학이 앞의 논문에서 소개한 창녕조씨(昌寧曹氏) 관련 해당 기록에는 『삼국유사』에 게재된 사금갑 설화와 거의 같은 사건이 기재돼 있는데 여기서는 내전분수승과 간통하다 들켜 복주된 사람을 ‘왕비(王妃)’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마도 조수학은 이런 『명위보』기록을 근거로 사금갑 사건이 비처왕비인 선혜부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추정한 듯하다. 『명위보』를 필자는 아직 접하지 못했으나, 참고문헌에는 제시한다.

박창화가 필사한 『화랑세기』가 정녕 신라 성덕왕 3년(704) 한산주 도독에 임명되었다는 신라인 김대문(金大問)의 바로 그 『화랑세기』를 필사한 것이라면,¹⁵⁾ 마침내 『삼국유사』에 게재된 사금갑 설화를 구축했을 법한 실제 사건이 무엇인지, 그 베일은 벗겨지게 된다. 그것은 무엇인가? 비처왕비가 간통 때문에 황후(皇后), 혹은 정비(正妃)¹⁶⁾ 자리에서 축출된 사건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이 글은 기존 문헌의 사금갑 설화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전분수승과 간통하다가 들킨 여주인공이 누구인지, 안정복 및 박창화의 주장대로 비처왕 정비인 선혜(善妃)인지 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삼국유사』 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에 기록된 사금갑 설화를 폭넓게 검토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궁주의 실체를 파헤칠 것이다. 또 문제의 『화랑세기』 필사본을 검토함으로써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을 『삼국유사』와 같은 기존 문헌의 대비 검토를 통한 결론과 대조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필사본 『화랑세기』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작업과도 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¹⁷⁾ 이러한 고찰 성과가 미칠 파급은 적지 않을 것이다.

2. 궁주와 왕비

가. 궁주와 왕비의 괴리

안정복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사금갑 설화를 비처왕비인 선혜의 간통 및 이에 따른 복주 사건으로 기정사실화 했는가? 앞서 지적했듯이 안정복 이후 이와 비슷한 견해를 제출한 20세기 이후 현대 역사가로는 박창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삼국유사』에 게재된

14) 이 중 신라사에 관한 일련의 논문인 「新羅史史について」와 「新羅史について()」 두 편은 『역사비평』 2002년 봄호(통권 62호)에서 박환부의 번역에 의해 전문이 소개됐다. 이 두 글은 『중앙사단(中央史壇)』이라는 일본어 역사학 잡지 제13권 제12호 통권 94호(1927. 12)와 제14권 제2호 통권 96호(1928. 2)에 각각 게재됐다. 두 글 사이에 나온 이 잡지 제14권 제1호 통권 95호(1928. 1)에는 박창화의 다른 조선 생활사 관련 논문인 「官服から沈積まで[흰옷에서 김치까지]」도 발견됐다.

15) 『삼국사기』 권 제 46(열전 제 6)에 이르기를 “김대문(金大問)은 본래 신라 귀한 가문 자제이며, 성덕왕 3년(704)에 한산주도독(漢山州都督)이 되었고, 전기 몇 권을 지었으니 그가 쓴 『고승전(高僧傳)』·『화랑세기(花郎世記)』·『악본(樂本)』·『한산지(漢山記)』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했다.

16) 필사본 『화랑세기』에는 신라왕들이 중국의 천자에 버금가는 존재로 설정되고 있다. 그래서 왕들을 가리켜 대제(大帝), 혹은 제(帝)라 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짐(朕)이라 일컫고 있다. 이 때문에 신라왕들의 정비는 황후(皇后)라고 표현하고 있다.

17) 필사본 『화랑세기』의 사료적 성격에 대한 시도는 많았다. 필자는 그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영사, 2002)를 낸 바 있다.

사금갑 설화에는 내전분수승과 밀통했다가 들켜 복주된 여인이 ‘궁주(宮主)’라고 확실히 못이 박혀있음에도 안정복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궁주가 아니라 비처왕 정비인 선혜라고 했는가? 궁주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피겠지만, 정비가 아니라 왕이 거느린 후궁의 특정 등급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사금갑 사건 주인공이 궁주인가 정비인가에 따라 이 사건은 그 해석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몰랐을 리 없는 안정복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후궁인 궁주 대신 정비인 왕비를 들고 나왔어야만 했는지 그 까닭을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사실 안정복의 주장이 박창화를 제외하고는 이후 학계에서 매몰되다시피 한 것은 첫째, 『동사강목』 문제의 기술을 거의 주목하지 않았고, 둘째, 설혹 주목했다 하더라도 그 까닭을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박창화는 분명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뒤에서 살피겠지만, 안정복의 주장을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화랑세기』 때문이었다.

이에 먼저, 『동사강목』문제를 먼저 해명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소위 사금갑 설화가 비단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출현한 문헌에도 등재돼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 성종 7년(1476) 12월에 완성된 편년체 삼국사인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와 그 연속작업으로 같은 왕 16년(1485) 7월에 최종 완결된 『동국통감(東國通鑑)』에는 『삼국유사』와 대단히 흡사하지만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사금갑 관련 사건 기사를 싣고 있어 비상한 주목을 요한다.¹⁸⁾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은 모두 세조 4년(1458) 9월에 세조의 명령에 따라 편찬이 시작됐으며, 무엇보다 편찬진이 대부분 중복된다는 점에서 기술 내용 또한 복사판이라고 할 정도로 겹친다. 다만 『삼국사절요』가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935년 신라 멸망 때까지만 기술하고 있음에 비해 『동국통감』은 말 그대로 동국(東國)의 통사로서 1392년 조선왕조 개창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역사를 서술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니 『삼국사절요』의 내용이 고스란히 『동국통감』에 전채되다시피 했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아울러 이 때문에 전체 15권인 『삼국사절요』에 비해 『동국통감』은 전체 56권으로 부피가 훨씬 크다.¹⁹⁾

18) 전성운과 조수학을 비롯해 사금갑 설화에 주목한 거의 모든 연구자가 이상하리 만치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에도 이 설화가 실려 있다는 사실을 빼뜨리고 있다. 고의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부주의로 인해 이들 두 문헌을 조사하지 않은 결과인지 그 원인은 알 수 없다.

19)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 편찬 과정과 그 목적 등에 대한 글로는 정구복, 2002, 『한국중세사학사Ⅱ』, 경인문화사, 현영우, 1981, 『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두 문헌은 모두 『삼국유사』가 전하고 있는 소위 사금갑 사건을 다루고 있다. 『삼국사절요』가 권 제 5 무진년[戊辰年: 신라 소지왕 10년 · 고구려 장수왕 76년 · 백제 동성왕 10년 · 제나라 영명 6년] 조에다가 이 사건을 배치하고 있는데 비해 『동국통감』은 권 제 4 끝머리에 실었다. 내용은 똑같다.

이들 두 문헌은 삼국시대[소위 통일신라시대 포함]의 경우 『삼국사기』를 기본으로 삼되 『삼국유사』· 『수이전』· 『동국이상국집』· 『세종실록지리지』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²⁰⁾ 한테 사금갑 사건은 『삼국사기』에는 보이지 않고 『삼국유사』에서 발견된다. 더구나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에 실린 이 사건은 『삼국유사』와 줄거리는 아주 비슷하면서도 결코 소홀히 하기 힘든 몇 가지 차이가 관찰된다. 지금 이 순간에 조선시대 초기에 편찬된 이들 두 문헌에 게재된 사금갑 설화의 출전이 『삼국유사』라는 심증을 강하게 가지면서도 다른 출전이 있었으리라는 의심도 품어 봐야 한다. 이에 우선은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에 게재된 다음과 같은 사금갑 사건 전문을 검토해야 한다.

(신라 제21대 소지왕 10년) ㉠ 봄 정월 15일에 신라왕이 천천정(天泉井)으로 행차하니 까마귀가 쥐와 함께 와서 울더니 마치 사람처럼 말을 했다.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잘 살피시오.” 왕이 기사(騎士)를 시켜(까마귀를) 쫓아가게 하니 피촌에 이르러 돼지 두 마리가 싸우는 장면을 한 동안 보고 있다가 문득 까마귀 간 곳을 잃어버렸다. 이 때 한 노인이 서찰을 기사에게 주었는데 곁에 이렇게 써어 있었다. “이것을 떼어 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요, 떼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기사가 이 서찰을 왕에게 드리니 왕이 말했다. “두 사람이 죽으니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일관(日官)이 아뢰었다. “한 사람은 임금이옵니다.” 왕이 그럴 듯하게 여겨(편지를) 떼어보니 ‘사금갑(射琴匣: 금갑을 쏘라)’이라 적혀 있었다. 왕이 궁실로 들어가 거문고 갑을 향해 활을 쏘니 과연 그곳에 사람이 있었는데, 내전에서 분향 수도하던 승려가 ㉡ 왕비(王妃)와 몰래 간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곧 복주되었다. ㉢ 이 때부터 나라 풍속에 정월 보름날에는 찹쌀로 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제사지냈다. 또 용은 비를 내리고 말은 짐을 실어 날라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멧돼지와 쥐는 곡식을 훔쳐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므로 해마다 그 해 첫달 용[辰]·말[午]·돼지[亥]·쥐[子]의 날에는 제사를 베풀어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쳤다. 그리고 또 온갖 일을 금지하여 서로 놓고 즐거워하며 신일(愼日)이라 했다. 방언에 이것을 달도(怛怛)라 하니 슬퍼하고 근심해서 모든 일을 꺼리어 금한다는 뜻이다.

20) 정구복, 2002, 『한국중세사학사II』, 경인문화사.

중요한 차이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첫째, 『삼국유사』만으로는 사금갑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를 알기는 대단히 곤란하나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에는 그 첫 줄에 소지왕[=비처왕] 즉위 10년(488) 정월 15일이라고 명확하게 나온다(㉑). 이와 관련해 『삼국유사』만으로는 이때가 정월 16일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짐작도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차이점 하나만으로도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이 소위 사금갑 사건을 단순히 『삼국유사』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강한 심증을 품게 한다.²¹⁾

둘째, 내전에서 분향하는 중과 금갑에서 간통을 벌이고 있던 여인이 『삼국유사』에는 ‘궁주’(宮主)로 표현되고 있는데 비해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에서는 ‘왕비’(王妃)라고 하고 있다(㉒)는 사실이 여간 심상치 않다.²²⁾

셋째,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에 게재된 사금갑 설화에는 사금갑 사건에서 유래한 세시 풍속(世俗)이 『삼국유사』의 그것과는 상당히 중복되는 듯하면서도 대단히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이라는 특징이 관찰된다. 예컨대 삼가는 날을 『삼국유사』에서는 정월 상순(上旬)의 돼지·쥐·까마귀 날의 3일만 제시했으나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에는 하루가 더 보충돼 있다.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게 왜 이러한 날들이 세시풍속으로 기념되고 있는지 그 까닭이 아주 그럴 듯하게 보충 설명되고 있다. 사실 『삼국유사』 기록만으로는 왜 그러한 날들이 이렇게 기념되는지를 알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나아가, 『삼국유사』는 이런 날들을 ‘오기일’(忌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비해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은 ‘신일’(愼日)이라 하고 있다.

『삼국유사』와 비교할 때 다른 두 문헌 기술이 더욱 구체성이 짙으며, 아울러 합리적 타당성을 구비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요컨대 『삼국유사』보다 후대에 편찬된 조선시대 관찬(官撰) 사서가 오히려 더 많고,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²³⁾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인가?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 찬자들이 『삼국

21) 그런데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 이후에 나온 사금갑 관련 기록에는 거의 예외없이 그 발생 날짜가 정월 15일로 못박혀 있다. 예컨대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 편 「서출지(西出池)」조에서는 사금갑 사건을 소지왕 10년(488) 정월 15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 여타 세시기에도 이를 따르고 있다.

22) 앞서 각주 13)에서 소개한 대로 조수학이 든 『명위보』에도 궁주가 들어가야 할 곳에 ‘왕비’로 대치되어 있다.

23)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삼국사절요』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짜깁기했다는 학계의 대체적인 시각 [정구복, 2002, 『한국중세사학사II』, 경인문화사가 대표적이다.]을 버리고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면밀히 사료적 검토를 가해야 한다.

유사』가 아닌 다른 자료[예컨대『수이전』]²⁴⁾를 참조해 사금갑 사건을 기술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일 것이다. 이는 나아가 『삼국유사』와 『삼국사절요』 및 『동국통감』이 같은 원전 텍스트를 각기 참조했다는 일대 증거가 된다. 이러한 같은 텍스트를 각기 전제하는 과정에서 『삼국사절요』·『동국통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삼국유사』 쪽이 변개(變改)·탈락(脫落)이 더욱 극심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필자는 『삼국유사』보다 『삼국사절요』·『동국통감』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내전분수승(內殿焚修僧)과 간통하다 복주(伏誅)된 여인은 『삼국유사』가 말하는 ‘궁주(宮主)’ 보다는 『삼국사절요』에 나오는 ‘왕비(王妃)’라는 표현에 더욱 신뢰가 가게 된다.

물론 『삼국사절요』·『동국통감』 편찬진이 그들이 참조한 모종의 원전에는 궁주라고 돼 있는데 이를 왕비로 바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 편찬자들이 궁주를 왕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궁주라는 표현을 바꾸어야 할 뚜렷한 원인을 찾기는 힘들다. 요컨대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이 참조한 사금갑 설화 원전 텍스트가 궁주라고 돼 있었다면 원문 그대로 궁주라고 할 것이지, 왕비라고 바뀌어야 할 까닭이 쉽사리 없다는 뜻이다.

이제 이 시점에서 후대에 나온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보다 오히려 그 전시대인 고려시대에 편찬됐다는 『삼국유사』가 원전 텍스트에 변개를 가했다고 확신해도 좋은 시점에 이르렀다. 『삼국유사』는 사금갑 관련 설화를 옮겨 실으면서 왕비를 궁주로 바꿔버렸던 것이다. 왜 바뀌어야 했을까? 『삼국유사』가 완성된 고려시대에 궁주라는 왕비나 왕의 후궁과 같은 ‘왕의 여인’을 가르치는 일반적인 용어였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단안도 내리기 힘들다.

아울러 이런 고찰을 통해 『삼국유사』 및 『삼국사절요』·『동국통감』 사금갑 사건이 실은 왕비, 다시 말해 비처왕비가 왕비 자리에 폐위된 사건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복주(伏誅)가 폐위의 일종임은 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안정복이 『동사강목』에서 사금갑 사건을 비처왕의 어떤 후궁인 궁주가 아니라 왕비와 직결시킨 것은 바로 『삼국사절요』·『동국통감』에 게재된 같은 설화를 대단히 치밀하게 분석한 결론임을 확신해도 좋은 시점에 이르렀다.²⁵⁾

24) 실물이 남아있지 않고 그 단편적 모습들만 각종 문헌에 산발적으로 인용돼 전하고 있는 『수이전(殊異傳)]을 전문적으로 파고든 이검국(李劍國)과 최환(崔煥)은 『신라수이전 집교(輯校)와 역주(譯註)](영남대출판부, 1998)에서 이러한 사금갑 설화 출전을 『수이전』(187~189쪽)으로 보고 있으나,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나. 비처왕비 선혜

그렇다면 내전분수승과 간통하다 들켜 복주된 비처왕비는 누구인가? 비록 안정복이 그 주인공을 선혜(滌分)라고 명시를 했지만, 그 주인공을 ‘궁주’라고 소개한 『삼국유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까지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으로는 왕비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 또 비처왕비와 놀아난 이 내전분수승의 정체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왕비가 진정 비처왕비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즉위 원년(479) 조에 보이는 내용이다.

- ① 소지마립간(炤知麻立干)이 왕위에 올랐다. 자비왕의 맏아들이고 어머니 김씨는 서불한 미사흔의 딸이다. 왕비는 선혜부인(善兮夫人)으로 이벌찬 내숙(乃宿)의 딸이다. 소지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섬기는 행실이 있었고, 겸손과 공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켰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였다.

이처럼 『삼국사기』는 소지왕비가 선혜(滌分)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는 않다. 왜냐하면 『삼국유사』 「왕력」편 신라 21대 비처마립간 조에는 다음과 같이 이와는 다른 내용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소지왕이라고도 하는데 성은 김씨다. 자비왕 셋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미흔(未欣) 각간 딸이다. 기미년에 왕위에 올라 2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왕비는 기보갈문왕(期寶葛文王) 딸이다.

『삼국사기』와 비교할 때, 첫째, 비처는 자비왕 맏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나며, 둘째, 왕비는 구체적 이름을 밝히지 않는 채 기보갈문왕의 딸이라고만 처리하고 있음을 본다. 소지왕이 자비왕의 몇 번째 아들인지는 여기서는 관심권 밖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비처왕비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첫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같은 인물을 가르키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25) 안정복이 『동사강목』 편찬을 위해 얼마나 광범위한 사료를 수집해 이를 치밀하게 비교 검토했는지는 그가 직접 사용한 『고려사』전체 130권 중 열전 1권이 현물로 남아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국민대 국사학과 박종기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이 안정복 수택본(手澤本) 『고려사』열전을 필자는 박 교수의 호의에 의해 몇 년 전 실견한 적이 있는데, 안정복은 그가 수집한 각종 자료와 어긋나거나 의심나는 곳에는 반드시 풋노트를 달아놓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풋노트를 박 교수가 일일이 검토한 결과 모두 현재의 『동사강목』에 반영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종기, 1993, 『『동사강목』 고려편 검토: 안정복의 수택본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24집』.

이별찬 내숙(內宿)과 기보갈문왕은 동일인이 된다. 이 경우 이별찬 내숙은 죽고 난 뒤 언젠가 기보갈문왕으로 추봉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 정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나 신라시대 갈문왕이²⁶⁾ 될 수 있는 인물은 왕이나 왕비의 ‘죽은’ 아버지, 혹은 왕의 ‘살아있는’ 형제 등으로 아주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많은 신라사 연구자가 공인하고 있으며 필자 또한 여기에 동의한다. 갈문왕은 신라 17관위 체계를 뛰어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이미 밝혀져 있으므로²⁷⁾ 이별찬이 갈문왕이 될 수 있을지언정, 갈문왕이 그 아래 위치하는 이별찬이 될 수는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선혜의 아버지 이별찬 내숙(①)과 기보갈문왕(②)이 같은 인물일 수는 없다.

비처왕이 선혜와 결혼한 게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다. 즉위 전인지, 후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해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지왕 8년(486) 조에는 “2월에 선혜 아버지인 내숙(乃宿)을 이별찬으로 삼아 나라 정치에 참여케 했다.”²⁸⁾ 구절이 눈에 띄고 있다. 내숙은 선혜의 아버지이니 이는 선혜가 비처왕비가 된 때가 늦어도 비처왕 즉위 8년 이전임을 시사한다. 내숙은 틀림없이 왕의 장인이자, 왕비의 아버지라는 혈통(血統)과 인통(姻統)을 발판으로 이별찬에 임명되었을 것이다. 내숙은 그 딸인 선혜가 왕비로 있는 상태에서 만약 죽었다면 틀림없이 갈문왕으로 추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딸 선혜가 왕비로 있던 시절, 그 아버지가 살아 있으며, 그 때문에 갈문왕에 추봉되지 못했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사금갑 사건이 일어난 때가 내숙이 이별찬이 된 지 2년 뒤임도 주목거리다.

사금갑 사건이 비처왕비 폐위와 관련됐었다고 추정하는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비처왕비인 선혜가 언제 황후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사금갑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에 왕비였느냐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만약 이 사건이 터질 무렵 선혜가 비처왕비가 아니었다면 필자의 접근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까지 고찰 결과 승려와 간통을 벌이다 들켜 처형당했다는 비운의 궁주 선혜는 사금갑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에 비처왕비였음을 확신해도

26) 갈문왕에 대해 구구한 개념 시도가 있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다. 필자는 갈문왕을 간단히 ‘왕이 아닌 왕’이라고 정의한다. 첫째, 갈문왕을 봉하는 주체는 어느 경우에건 현재의 왕이 임명하며, 둘째, 그 임명 대상은 크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며, 셋째, 어떤 경우에건 현재의 왕과 혈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27) 왕과 왕비 및 차기 왕위계승권자인 태자를 빼고 17관위 체계를 초월한 존재를 신라사에서 찾아보면, 첫째, 갈문왕이 있고, 둘째, 27대 선덕왕을 끝으로 성골이 소멸되기 전까지 적통 왕자(공주)가 있으며, 셋째, 김유신이 처음으로 봉해진 태대각간이 있다.

28) 중고기 이전 신라사에서 현직 왕비의 아버지가 죽은 사람일 경우, 통상 갈문왕에 추봉되는 게 정상이나, 선혜 황후의 아버지인 내숙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갈문왕이 되지는 못하고 관위가 차츰 올라 이 때 이별찬에 임명되었던 것 같다.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 공주의 실체

앞선 고찰을 통해 『삼국유사』 사금갑 설화에 등장하는 ‘공주(宮主)’는 실은 ‘왕비’의 개편임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치부해도 좋은기는 별개다. ‘공주’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공주란 무엇인가? 『삼국유사』 사금갑 설화로 볼 때 공주가 여자임은 명약관화하다. 내전에서 분향하는 중이 남자이며 그와 간통했다 하므로 그가 동성애자가 아닌 이상 공주는 여성이다. 또 명칭으로만 보면 공주(宮主)는 글자 그대로 궁(宮)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공주는 정확히는 ‘궁의 여주인’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신라시대 공주의 사례를 모조리 뽑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서도 공주의 실체가 해명되지 않으면, 비교사적인 고찰을 동원하는 길밖에 없다. 다른 시대에 ‘공주’가 등장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신라시대로 치고 들어가 해명을 시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공주’의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첫째, 비록 사례는 빈약하나 신라시대 공주가 더러 있고, 둘째, 고려시대에 더욱 많은 공주가 실례로 확인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먼저, 신라시대 공주의 사례를 보면 비록 ‘왕비’의 개편이긴 하지만 『삼국유사』 사금갑 설화에서 그 실례가 첫 번째로 보이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같은 『삼국유사』에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충하게 되니, 권 3 탑상(塔像) 제 4에 실려있는 ‘백률사(栢栗寺)’에서 또 하나의 공주를 확인하게 된다. 이곳 권 2 기이(紀異) 제 2에 실린 ‘만파식적(萬波息箝)’ 설화와 세트를 이루는 이 ‘백률사’ 조 이야기는 부례랑(大禮郎)이라는 신라 효소왕 때 국선(國仙)²⁹⁾ 북명(北溟)으로 놀러갔다가 적적(狄賊)에게 사로잡히는 처지가 됐다가 백률사 부처의 영험으로 무사 귀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 이야기는 부례랑이 생환한 기쁨에 효소왕이 다 음과 같이 조치했다고 전하고 있다.

부례랑을 봉하여 대각간(大角干)을 삼고, 아버지 대현아찬(大玄阿澮)은 태대각간(太角干)을 삼았으며, 어머니 용보부인(龍寶夫人)은 사랑부(沙梁部)의 경정공주(鏡井宮主)를 삼았다.

29) 국선(國仙)은 화랑의 별칭으로 생각되고 있다. 화랑 중에서도 아마도 우두머리를 가리키고 있음은 확실한 듯하다.

이를 통해 분명 경정궁주(鏡井宮主)라고 해서 궁주의 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궁주는 실체가 아리송하다. 아마도 경정궁주란 경정궁(鏡井宮)이라는 궁(宮)과 관련이 있을 법한데, 또 부레랑이 국선이므로 화랑과도 관계가 있을 법한데 더 이상 그 실체를 추적할 만한 고리가 없다. 다만 부레랑의 어머니로서, 대현(大玄)의 아내이기도 한 경정궁주 용보(龍寶)라는 여인은 기존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화랑세기』에는 뜻밖에도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누이동생이자 13세 풍월주를 역임한 김춘추의 양아버지 김용춘(金龍春)의 서녀(庶女)로 나오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즉, 이곳 13세 용춘공(龍春公) 전에는 다음과 같이 용보의 계보가 등장하고 있다.

앞서 [용춘이] 왕명으로 호명궁(昊明宮)에 살면서 딸 다섯을 낳았다. 달리 적자(敵子)가 없어 태종[太宗, 김춘추-인용자]을 아들로 삼았다. 서자는 다섯이다. 용산(龍山)과 용석(龍石)은 대씨(大氏)가 낳았다. 용귀(龍貴)는 미생공(美生公)의 딸 매생(梅生)이 낳았다. 용주(龍珠)와 용릉(龍凌)은 비보랑공 비의 딸 홍주(紅珠)가 낳았다. 서녀는 18명이었다. [그 중] 용산의 누이 용태(龍泰)는 태종을 섬겨 인태(仁泰) 각간을 낳았다. 용주의 누이 용보(龍寶)는 태종을 섬겨 거득(車得)과 마득(馬得) 두 공을 낳았다.

이에 따르면 용보는 용춘이 홍주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딸로 나중에 김춘추를 섬겨 거득과 마득이라는 두 아들을 낳은 셈이 된다. 거득과 마득은 『삼국사기』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삼국유사』에서는 김춘추의 서자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³⁰⁾

신라시대 궁주의 마지막 사례는 각훈이 찬한 『해동고승전』에서 확인되는 성국궁주(成國宮主)이다. 즉, 이곳 권 제 1 ‘아도(阿道)·흑호자(黑胡子)·원표(元表)·현창(玄彰)’ 조에서는 박인량(朴寅亮)의 『수이전(殊異傳)』을 인용해 고구려를 통해 미추왕 때 신라에 숨어 들어온 승려 아도가 마침 미추왕녀인 ‘성국궁주(成國宮主)’의 병을 치료하게 됐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삼국유사』 권 3 「흥법(興法) 제 3 아도기라(阿道基羅)」조에도 보이고 있다. 한데 여기서는 ‘성국궁주’가 아닌 ‘성국공주(成國公主)’이다.

여기서 더욱 주목되는 점은 『삼국사절요』 및 『동국통감』에 표현된 ‘왕비’가 『삼국유사』에는 ‘궁주’로 돼 있듯이 『해동고승전』의 ‘궁주’가 『삼국유사』에는 ‘공주’로 돼 있다는 것은 확실한

30) 『삼국유사』 권 2(기이 2) ‘태종(太宗) 춘추공(春秋公)’ 조에서 이르기까지 “[김춘추의] 서자(庶子)는 개지문(皆知文) 급간(緞干)과 거득령공(車得令公)·마득(馬得) 아간(俄間)이다. 딸까지 합치면 모두 다섯 명이다.”고 하고 있다.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단순한 개변(改變)이 아니라, 이들 용어가 개변이 될 만큼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 용어가 ‘왕비’ 건, ‘궁주’ 건, 혹은 ‘공주’ 건, 이들을 묶어주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필자는 그것을 ‘왕의 여인’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 관계가 부인(첩) 혹은 딸이라는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결국 ‘왕의 여인’이라는 한 가지 개념으로 묶어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고려시대 궁주의 개념을 검토할 때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받게 된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궁주는 무엇인가?

라. 고려시대 궁주

궁주에 관해서는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지에 아주 많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종래 학계 지배적인 견해로는 궁주는 고려시대에만 존재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궁주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화랑세기』 필사본 진위 논쟁에 뛰어난 어떤 연구자는 이 필사본에 이러한 고려시대에만 등장하는 궁주가 많이 보이는 점을 들어 가짜라고 후대 조작 설을 내세우기도 했다.³¹⁾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재호가 이미 지적했듯이³²⁾ 고전(古典)과 한학(漢學)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데 따른 억단이다. 무엇보다 앞서 본 대로 신라에도 이미 궁주가 서너 차례 확인되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궁주에 『고려사』 권 제 88 후비전(后妃傳)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이고 있다.

고려제도에 왕의 어머니는 왕태후(王太后)라 하고, 정비(嫡妻)는 왕후(王后)라 했다. 첩은 부인(夫人)이라 했으니 숙비(淑妃)·덕비(德妃)·현비(賢妃)는 부인(夫人)이며, 모두 정일품(正一品)이다. 나머지는 상궁(尙宮)·상침(尙寢)·상식(尙食)·상침(尙針)이니 모두 정해진 수와 차례[員次]가 있다. 정종(靖宗) 이후에는 궁주(宮主)라 하기도 하고, 원주(院主)라고도 했으며 옹주(翁主)라 일컫기도 했다. 바뀌고 도로함이 일정치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高麗之制, 王母稱王太后, 嫡稱王后. 妾稱夫人. 淑妃·德妃·賢妃 是爲夫人秩 並正一品 自其餘 尙宮·尙寢·尙食·尙針 皆有員次. 靖宗以後 或稱宮主, 或稱院主, 或稱翁主. 改復不常. 未可詳也.]

이로 본다면 고려시대 궁주(宮主)는 원주(院主), 옹주(翁主)와 함께 왕의 첩을 가리키는 등급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그 위상이 정비 아래였음은 확실하다. 그런데 위 인용문은 왕의 첩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궁주(宮主) 등이 사용된 것이 제 10대 정종(靖宗, 재위

31) 권덕영, 1989, 「필사본 『화랑세기』의 사료적 검토」, 『역사학보 123』.

32) 이재호, 1989, 「『화랑세기』의 사료적 가치: 최근 발견된 필사본에 대한 검토」, 『정신문화연구 36집』.

1035~1046) 이후라고 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공주와 원주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및 『동국통감』에 한결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려사절요』를 보면 현종 2년(1011) 거란군 침입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한 왕을 따라다니던 후궁으로 대명궁주(大明宮主)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왕 13년(1022) 조에 서는 이 해 겨울 10월에 왕이 연경궁주(延慶宮主) 김씨를 왕비로 책봉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로 보아 연경궁주는 현종 후궁이었다가 이 때 왕비로 승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2년 뒤인 같은 왕 15년(1024) 조에는 왕이 경흥원주(景興院主) 김씨를 덕비(德妃)로 책봉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무렵 원주(院主)는 왕의 후궁이기는 하나 덕비(德妃)보다는 품계가 낮았음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고려시대에 궁주(宮主)라든가 원주(院主)는 왕이 거느린 여인 중에서도 정비인 황후나 각종 비(妃) 계열 아래에 위치한 첩을 가리키는 봉작(封爵)이었음을 규명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고려시대 궁주가 곧바로 『삼국유사』 사금갑 설화에 보이는 신라 비처왕 시대 궁주와 같은 위상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하지만, 고려는 신라를 대체한 왕조며, 그렇기에 신라의 각종 제도를 물려받았을 것이다. 궁주(宮主)에만 국한한다 해도 마침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모두 같은 명칭이, 더구나 왕의 후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고려시대 궁주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신라시대 궁주의 위상을 다시 거꾸로 추적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음은 분명하다.³³⁾ 이는 나아가 신라시대에 확인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궁주가 결국은 ‘왕의 여인’이었다는 추정과도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 『화랑세기』의 궁주

『화랑세기』 필사본에는 많은 궁주가 등장한다. 이들을 귀납적으로 정리하면 궁주는, 첫째, 예외 없이 왕의 후궁이며, 둘째, 궁(宮)이라는 별도의 건물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에 따른다면 궁주는 말 그대로 궁의 주인인 셈이다. 하지만 엄밀히 궁주는 궁의 안주인이니 실질 주인은 왕이다.

필사본에는 전주(殿主)와 화주(花主)도 보인다. 전주는 오직 미실(美室)이라는 진흥왕

33) 궁주는 고려시대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조선에도 그것이 존재했음이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조선 제 10대 국왕 연산군 묘역 묘비명에서 확인된다. 이곳에는 현재 연산군 내외말고 3기의 묘소가 더 있는데 이 중 하나의 묘비에는 “宮主趙氏之墓(궁주조씨지묘)”라고 적혀 있다. 이 궁주가 누구인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조용중은 연산군의 후궁 중 한 명으로 보고 있다. 조용중, 『연산군 묘소 앞의 궁주 조씨 묘소에 대하여』, 『박물관신문』, 제375호(2002. 11. 1) 제3면, 국립중앙박물관.

애첩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호칭이다. 이에 따르면 왕은 미실을 ‘황후궁 전주(皇后宮殿主)’로 봉했다 한다. 전주는 개념이 확실치 않으나 전(殿)이라는 건물체의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필사본에서 확인되는 왕자의 여러 등급 중 하나인 전군(殿君) 또한 주목을 요한다.

전군은 왕이나 왕비가 후궁이나 다른 남자와 관계[그 대부분은 사통(私通)으로 분류할 수 있다.]해서 낳은 아들인데, 왕궁에서 거주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따라서 전군은 명칭으로 보아 틀림없이 전(殿)이라 일컫는 왕궁 건물체를 소유한 왕자가 된다. 전주(殿主)는 이러한 전군(殿君)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듯하다. 실제 필사본에서 확인되는 유일한 전주(殿主)인 미실은 진흥왕 후궁이자 애첩이기에 앞서, 진흥왕 이복동생이자 지소태후가 태종(岑宗), 즉, 이사부와 사통해서 낳은 세종(世宗)이라는 전군(殿君)의 부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진흥왕은 입종과 지소 사이에서 난 아들이니, 세종과는 씨가 다른 형제다. 필사본에서 진흥왕은 세종을 “내 막내아우”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진흥왕이 전군(殿君)이자 동생인 세종의 부인 미실을 전주(殿主)로 봉했다는 함은, 전군 세종이 사는 건물체인 전(殿)의 안주인으로 삼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필사본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화주(花主)란 예외없이 화랑 중의 화랑, 우두머리 화랑인 풍월주(風月主)의 부인을 가리키는 명칭인데, 글자 그대로는 화랑의 안주인이라는 뜻이다. 전군이 사는 전(殿)의 안주인인 전주, 궁주가 거주하는 궁(宮)의 안주인인 궁주와 일맥상 통하는 용어임을 여실히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궁주는 전주와 화주 및 전군 등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그 실체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사금갑 설화라든가 거기에 등장하는 궁주 혹은 왕비의 실체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및 『삼국사절요』·『동국통감』 같은 기존 사서 중심으로 접근했다. 그 결과 이 설화가 비처왕비의 간통 및 그에 따른 처형이라는 실제 사건을 모델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심증을 굳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작업만으로는 어쩐지 그 토대가 불안한 느낌이 있다. 타당성 있는 추정을 넘어 사실 단계로 접어들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필자는 『화랑세기』 필사본을 비교 검토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이제 고려시대 이후 후대 각종 문헌에 사금갑이라고 해서 설화화된 형태로 남은 이 이야기가 실은 비처왕비인 선혜황후의 간통으로 인한 폐위 사건임을 확정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선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복주된 것이 아니라 황후 자리에서 폐위되어 신궁(神宮)이라는 신라

당대 최고의 제사시설을 주관하는 신궁제주(神宮祭主)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는 아울러 그 실체가 대단히 모호한 신라 신궁(神宮)의 한 단면을 파헤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성과를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금갑 설화는 궁주가 아니라, 신라 비처왕의 정비인 선혜(善妃)가 관련된 사건이다. 둘째, 선혜와 잠통(潛通)한 남자는 불교 승려로 생각된다. 셋째, 이 사건이 들통남으로써 잠통 사건 두 주체인 비처왕비 선혜와 불교 승려는 둘 다 복주(伏誅)되었다. 넷째, ‘궁주’는 이 사금갑 사건과 그다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그렇다고 무관하지도 않은 신라사의 단면을 함유하고 있다. 다섯째, 이러한 ‘궁주’는 고려시대의 그에 대한 고찰 성과를 대비할 때, 신라시대 또한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왕의 후궁, 다시 말해 왕의 첩(妾)이었다.

3. 『화랑세기』가 폭로한 사금갑 사건의 실상

가. 조생이 사통해서 낳은 딸 선혜

『화랑세기』 필사본이 드러낸 신라사 단상은 한 두 가지가 아니나 그 중 하나가 비처왕비 선혜가 어느 때인가 사통(私通) 사건 때문에 황후 자리에서 폐위되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필사본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신빙성 확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기존 사서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³⁴⁾ 하지만 이 자리서 필자는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자 한다. 그것은 앞서 보았듯이 이미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에서 그런 흔적이 농후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화랑세기』는 언제쯤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선혜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으며 그 뒤에는 신궁제주가 되었음을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전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바 있다.³⁵⁾ 또 필사본에는 『삼국사기』에는 간략하게만 남아있는 선혜의 정체에 대해서도 비교적 풍부한 자료를 남기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이미 언급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한편 종전에 다루지 못했거나 다루었더라도 재고의 여지가 있는 대목 및 아예 언급하지 않은 대목들을 보충해 주제를 전개시켜 나가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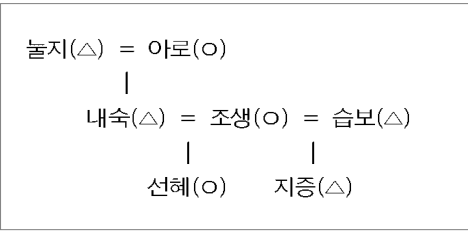
34) 김태식, 2002,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 88~89쪽, 김영사.

35) 김태식, 앞의 책, 85~99쪽.

먼저 필사본을 통해 드러난 선혜의 계보를 보자. 앞서 보았듯이 이에 관해 기존 문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란 비처왕비이자, 이별찬 내숙의 딸이 전부였다.

③ [세종은]어머니가 보옥공주(寶玉公主)이니, [습보공의]딸이다. 습보공(習寶公)은 내물왕 손자이다. 지소(只召)는 어머니가 보도황후(保道皇后)이니, 소지왕 딸이다. 보도는 어머니가 선혜황후인데 내숙공(乃宿公) 딸이다. 선혜는 어머니가 조생부인(鳥生夫人)인데 눌지왕 딸이다. 조생은 어머니가 아로(阿老)이고, 아로는 어머니가 내류(內留)이며, 내류는 어머니가 광명(光明)이고, 광명은 어머니가 아이헤(阿爾兮)이고, 아이헤는 어머니가 홍모(紅帽)이다. 홍모는 어머니가 곧 옥모(玉帽)이다. [6세 세종 전]

계보가 복잡한 듯하니 선혜를 중심으로 그 골자를 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혜는 아버지가 내숙이다. 이는 『삼국사기』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둘째, 그 어머니는 조생(鳥生)이다. 조생은 『삼국사기』신라본기 지증왕 즉위년 조(500)에서 “[지증왕은] 나물왕 증손으로 습보갈문왕(習寶葛文王) 아들이고 소지왕(昭知王) 재종 동생이다. 어머니는 김씨 조생부인(鳥生夫人)이니 눌지왕 딸이다.”고 하고 있다. 이로 보아 조생에게 원래 남편은 지증왕 아버지인 습보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필사본에서는 이러한 조생이 내숙이라는 남자에게서 선혜라는 딸을 낳았다고 돼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필사본을 무수히 장식하고 있는 사통(私通)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사통에 대해 필자는 이미 정식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간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³⁶⁾ 조생 또한 정식 남편으로 습보를 둔 상태에서 내숙과 사통해 선혜를 낳은 것이다. 그러니 지증과 선혜는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이부동모 형제인 동시에 눌지왕에게는 다 같은 외손이 된다.



〈표 1〉선혜 계보

〈표 1 참조〉

나. 황후에서 폐위된 선혜

이러한 혈통을 지닌 선혜가 신라 제21대 소지왕[=비처왕]비가 되었음은 삼국사기와 『화랑세기』 필사본이 일치하고 있다. 필사본의 경우 앞서 인용한 6세 세종 전에서 보듯이 선혜에

36) 김태식, 앞의 책, 425쪽

게는 황후(皇后)라는 칭호가 붙어있고 소지왕과의 사이에서 나중에 법흥왕비가 되는 보도(保道)를 낳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⁷⁾

한데 이러한 소지왕비 선혜가 어느 때인가 황후(왕비) 자리에서 폐위됐음이 필사본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선혜황후는 묘심랑(妙心郎)이라는 정체 불명의 남자와 사통 관계가 문제가 되어 폐위됐다. 다음 인용구절에는 선혜와 묘심랑에 얽힌 관계가 비교적 소상하게 드러난다.

㉞ 금진(金珍)은 아버지가 위화랑(魏花郎)이고 어머니는 오도낭주(吾道娘主)이다. 오도는 어머니가 선혜 황후이고 아버지는 묘심랑이다. [묘심랑은]천주공(天柱公) 아들인데 얼굴이 잘 생기고 색사(色事)를 잘 해서 [비처왕의]후궁들과 사사로이 정을 통한 일이 많았다.[선혜황후가]복을 빌러 절을 찾아 법으로써 약속하기를 삼생(三生)… 묘심이 주살됐다.[7세 설화랑전]

위 인용문이 왜 7세 설화랑(薛花郎) 전에 나오는가? 설화랑의 계보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설화랑 계보에 금진은 왜 등장하는가? 설화랑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금진은 누구인가? 초대 풍월주인 위화랑이 오도에게서 낳은 딸이다.

금진은 남편 구리지(仇利知)에게서 장남 토함(坭含)과 장녀 새달(來達) 및 막내아들이자 5세 풍월주를 역임하게 되는 사다함(斯多含)을 낳았다. 구리지가 죽은 다음에는 구리지의 사신(私臣)이었던³⁸⁾ 설성(薛成)을 끌어들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설화랑이다.³⁹⁾ 5세 사다함 전에 따르면 금진 스스로는 설성을 가리켜 자신의 ‘사노(私奴)’라⁴⁰⁾ 일컫는 장면이 포착된다.

위 설화랑 전에 따르면 선혜는 금진에게는 외할머니가 된다. 그런데 선혜는 묘심랑이라는 남자와의 사이에서 딸 오도를 낳았다.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남편이 다른 아님 왕인데 다른 남자에게서 아이를 낳았으므로 선혜와 묘심의 관계는 사통(私通)이 된다.

37) 보도가 법흥왕비임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확인된다. 보도가 누구의 딸인지는 기존 문헌에서는 알 수가 없으나, 『화랑세기』 필사본에 의해 부모가 소지왕과 선혜라는 뜻밖의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38) 특정 개인을 모시는 신하라는 뜻이다.

39) 이 설화랑에 대해 필사본은 처음 이름이 설원랑이라고 밝히고 있다.

40) 여기서 ‘노(奴)’는 이영훈이 이미 지적했듯이(이영훈, 2002, 「화랑세기에서의 노와 비」, 『역사학보 176집』) 조선시대 및 현대 일반인의 통념에 자리잡은 노비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그 의미를 풀 수 없다. 단순히 어떤 개인에게 복종하는 신하라는 의미 정도로 봐야 한다. 이는 필사본 전편에 걸쳐 부수하게 등장하는 ‘신(臣)’이나 ‘첩(妾)’이라는 용어 또한 마찬가지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고려시대 이후에 나온 문헌기록 뿐만 아니라, 신라 당대 금석문에도 이 ‘奴’라는 글자는 인명은 물론이고, 지명, 노인법 같은 법령 이름에서도 꽤 많이 확인되고 있거니와, ‘奴’가 과연 현대의 일반적 개념으로 신라당대에 쓰였다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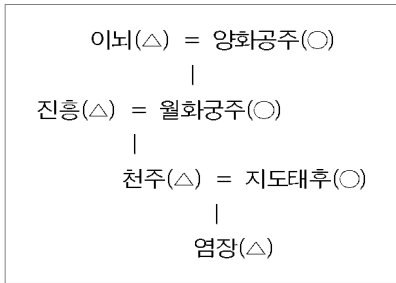
다. 복주되는 선혜의 남자 묘심

이런 사정은 1세 위화랑 전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즉, 여기서 이르기를 “오도는 선혜후와 묘심이 사통해서 낳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데 이러한 묘심이 무슨 까닭에서인지 복주(伏誅)되고 있는 모습이 위 설화랑 전에서 포착되고 있다. 도대체 묘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위 인용문으로서는 알 수 있는 단서가 없다. 왜인가? 현존 필사본이 훼손이 너무 심해 탈락된 글자가 너무 많은데 아쉽게도 묘심의 복주 사건에 관한 대목에서는 비단 위 설화랑전 구절 뿐만 아니라, 필사본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우리는 첫째, 묘심이 천주공(天柱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선 확인한다. 천주공은 누구인가? 공은 중(宗)처럼 남자에게 붙은 존칭 어미이므로 원래 이름은 ‘천주(天柱)’임을 말할 나위가 없다. 천주라는 이름은 필사본에는 더 나오고 있는데 17세 영장공(廉長公) 전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로서 진흥왕과 월화공주(月華公主)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10세 미생랑(美生郎) 전을 보면 당시 화랑도가 5개 과별로 나뉘어져 있었음을 전하면서 그 중 한 과가 천주공을 풍월주로 세우고 서현랑을 [김유신의 아버지] 부제(副弟)로⁴¹⁾ 삼으려던 가야과가 존재했음을 소개하고 있다. 왜 가야과는 천주공을 받들었는가? 천주공이 가야 후손이었기 때문이다.⁴²⁾

<표 2>에서 보듯이 천주공의 어머니 월화는 가야국왕 이뇌왕(異惱王)이 신라여인인 양화공주(兩花公主)를 아내로 맞아들여 낳은 딸이었다. 따라서 월화는 어머니의 나라로 시집와서는 진흥왕을 섬겨 천주공을 낳은 것이다. 그러니 천주에게는 가야[이 경우는 대가야다.] 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⁴³⁾



<표 2> 영장공 세계

한데 주의할 것은 가야과가 받든 천주공과 묘심의 아버지로서 비처왕비인 선혜황후와 사통한 천주공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점이다. 우선 둘은

41) 화랑도 조직에서 우두머리인 풍월주 바로 아래 위치한다. 풍월주를 ‘주형(主兄)’이라 하는데 건주어 그 동생격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명칭을 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다면 화랑도 조직은 철저히 부계제적 가족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가야과란 글자 그대로 가야과가 섞인 과별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부계든 모계쪽이든 어느 한 쪽이라도 가야과가 흐르고 있으면 그 후손은 가야과로 분류된다. 이는 『화랑세기』 필사본에서 가야과와 함께 커다란 혈통을 이루고 있는 두 갈래인 진골정통(眞骨正統) 및 대원신통(大元神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다. 즉, 후자의 두 혈통이 철저히 모계로 이어지는데 반해 가야과는 부계든 모계든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번식력이라는 측면에서 진골정통과 대원신통과가 가야과에 미칠 수는 없다.

활동연대가 일치하지 않는다. 묘심의 아버지 천주는 아들 묘심이 활동한 때가 비처왕 때이니 활동연대가 적어도 비처왕 이전이 되어야 한다. 묘심의 아버지 천주는 틀림없이 자비왕~비처왕 무렵(459~500년)에 활동했을 것이다. 반면 염장공의 부친이자 가야파인 천주공은 아버지가 진흥왕이니 그 중심 활동연대는 틀림없이 진지왕~진평왕 무렵(576~632년)일 것이다.

가야파가 천주공을 풍월주로 받든 가운데 부제로 앉히려 했다는 김서현이 신라에서 대대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같은 기존사서는 물론이고 『화랑세기』 또한 진평왕 재위 무렵이라는 사실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묘심의 아버지 천주공과 가야파 천주공은 활동시기가 대략 100년 가량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두 천주공은 동명이인이었던 것이다.

라. 선혜를 사로잡은 꽃미남

그렇다면 묘심의 계보에 대해 더 자세한 기술은 없을까? 앞서 인용한 설화랑 전 바로 뒷구절이다.

◎ 선혜황후는 진골정통으로… 제주(祭主)가 되었다. 【묘심랑의 선조는…에서 나왔으니 남해왕(南解王) 종자(從者)의 후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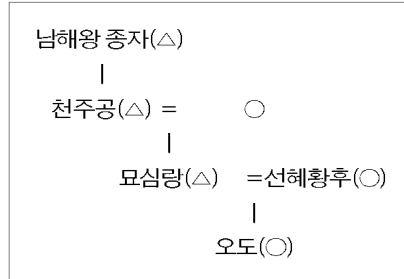
【 】는 묘심랑의 계보를 설명하는 구절인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이 탈락돼 있다. 그렇지만 그 가문의 시조는 신라 제 2대 남해왕의 종자, 즉, 남해왕을 모셨던 사람의 후손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아쉽게는 하지만 비처왕비 선혜와 사통해서 딸 오도를 낳은 묘심랑 가문을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묘심랑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우선 대단한 미남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을 빌리자면 ‘꽃미남’ 이었다. 이를 무기로 묘심은 비처왕의 후궁들을 농락하고 나아가 선혜황후까지 사로잡았음에 틀림없다.

둘째, 이것이 『삼국유사』 사금갑 설화의 남자주인공인 내전 분수승이 누구인지 실체를 파악

43) 그렇다면 풍월주로 삼으려 했던 천주는 대가야이고, 부제 후보인 서현은 금관가야이니 다른 가야임에도 어떤 운명적 공동체성이 확인되고 있어 흥미롭다. 문노 전을 보면 김유신이 삼한을 일통한 이후 문노를 사기의 으뜸으로 삼았다 했는데, 여기에도 문노(대가야)와 김유신(금관가야) 모두 가야파라는 공동체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데, 묘심은 사찰과 관련된 모종의 직종에 종사했음을 엿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혜가 묘심과 삼생(三生)을 같이 하기로 약속한 곳은 전후 문맥으로 미뤄볼 때 사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삼생이란 전생·현생·내생을 병칭하는 불교 용어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어떻든 설화랑 전 인용문 ㉔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법흥왕 재위 15년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인 비처왕 재위 무렵에 이미 신라에는 사찰이 있었다는 놀라운 순간에 봉착한 것이다.⁴⁴⁾ 필사본이 진본이라면 신라 불교사는 다시 써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서 발견된다.



<표 3> 묘심랑 세계표

마. 신궁(神宮)으로 쫓겨난 선혜황후

그렇다면 쫓겨난 황후 선혜는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와 관련해 앞서 인용한 설화랑 전(㉔)은 주목을 요한다. 비록 중간에 몇 글자가 지워지는 바람에 아쉽기는 하지만, 전후문맥으로 미뤄, 묘심과의 사통이 문제가 되어 황후 자리에서 쫓겨난 선혜가 제주(祭主)가 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란 말할 것도 없이 제사를 관장하는 주인이니, 소위 말하는 제관(祭官)이자 사제(司祭)이다. 선혜는 성별로는 여자이니 여사제(女司祭)이자 여제관(女祭官)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선혜가 어떤 제사를 관장한 제사장(祭禮長)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13세 풍월주 용춘공 전 세계(世系) 조에 보이는 다음 구절은 그야말로 그 궁금증을 푸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㉔ [용춘은] 아버지가 금륜대왕[金輪大王, 진지왕-인용자]이고 어머니는 지도황후(知道皇后)이다. 금륜은 아버지가 진흥대제이고 어머니는 사도태후(思道太后)이다. 지도는 아버지가 기오(起烏) 각간이고 어머니는 흥도(興道)인데 영실공(英失公) 딸이니 사도태후와는 배가 같은 동생이다. 기오의 아버지 홍기(洪器)가 신궁봉사(神宮奉事)가 되어 신궁황신(神宮皇神)인 선혜황후와 정을 통해 태어났다.

용춘의 계보 중에서도 어머니인 지도가 누구인가를 아주 멀리까지 밝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44) 흔히 신라 최초의 사찰은 법흥왕 때 창건이 시작되고 진흥왕 때 완성됐다는 흥륜사를 들고 있으나, 필사본에 따르면 이미 자비왕 때 천주사라는 사찰이 존재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흥기와 선혜황후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한데 지도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흥기에 대해 위 인용문은 신궁봉사로 있을 때, 신궁황신인 선혜황후와 정을 통해 기오를 낳았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황후에서 폐위된 선혜황후가 쫓겨나 제주(祭主) 역할을 한 제사 시설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다. 그것은 무엇인가? 신궁(神宮)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같은 『삼국사기』가 소지왕 9년(487)에 설치되었다고 하는(신라본기) 반면 다른 쪽[잡지 제사 조]에서는 지증왕(재위 500~514)에 설치됐다는 두 가지 기록이 전하고 있는 신궁(神宮)이 신국(神國) 신라를 표상하는 최고의 제사시설로서 신라왕이나 생전에 대영웅 혹은 대영걸로 추앙된 인물들이 봉안된 곳임을 설파한 바 있다.⁴⁵⁾ 나아가 필자는 이러한 신궁에 폐위된 소지왕비 선혜가 제주로 쫓겨 가고 있음을 주목해 신궁 설치에 대한 상이한 『삼국사기』 두 기록 중 필자는 소지왕 9년(487)이 더욱 합당할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추정은 사금갑 사건이 신궁 설치 이듬해인 같은 왕 10년이라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또 하나, 폐위된 선혜와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신궁과 같은 신라의 제사시설에서 그 의식을 주관하는 이가 여자라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필자는 비단 『화랑세기』 필사본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도 그러한 흔적이 농후하게 관찰되고 있음을 근거를 아울러 제시하면서 신라시대에 여사제 시스템이 결코 놀랄 만한 사건은 아님을 지적하기도 했다.⁴⁶⁾

바. 묘심사(妙心事)와 천주사(天柱事)

다시 묘심이라는 선혜황후의 꽃미남으로 돌아간다면 그가 절과 관련되는 인물, 다시 말해 승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묘심이라는 이름 자체가 영 범상치 않다. 불교적 색채가 짙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찰이나 승려 이름 따위에 묘심이 허다하게 등장하고 있음이 그 단적인 보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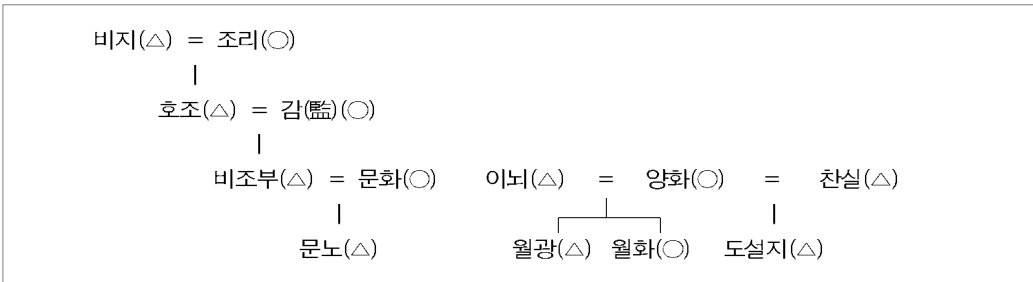
묘심이 불교와 관련됐다는 방증자료는 필사본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 묘심사(妙心寺)와 천주사(天柱寺)가 그것이다. 묘심사는 무엇이고 또 천주사는 무엇인가? 결론을 말한다면 둘 다 지칭하는 대상이 같다. 8세 문노(文繄) 전 기록이다.

45) 김태식, 2002,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영사, 62~67쪽.

46) 김태식, 앞의 책, 90~96쪽.

㉔ (문노는) 아버지가 비조부(比助夫)이고 할아버지는 호조(好助)이며 증조는 비지(比知)이다. 호조의 어머니는 등흔공(登欣公) 누이인 조리(助里)이니 또한 … [5글자 탈락]이 된다. 선혜황후는 묘심사(妙心事)로 폐위되어 살게 되니(어), … [5글자 탈락]감(監)과 정을 통해 비조부와 양화공주를 낳았다. 비조부 또한(아버지) 호조공의 첩인 문화공주(文華公主)와 정을 통해 (문노) 공을 낳았다.

위 인용문에는 나오지는 않으나 호조공 딸인 양화공주는 나중에 (대)가야왕 이뇌(異腦)에게 시집가서 아들 월광(月光)과 딸 월화(月華)를 낳았다. 양화는 이어 이뇌가 숙부인 찬실(贊失)에게 쫓겨나자, 찬실과 살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대가야 마지막왕인 도설지(道設智)이다. <표 4 참조>



<표 4> 문노 계보

비지(比智)는 『삼국사기』에도 보이고 있다.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15년(493) 조를 보면 “봄 3월에 백제왕 모대(牟大, 동성왕)가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므로, 왕이 이별찬 비지(比智)의 딸을 그에게 보냈다.”고 했다. 백승충(1996, 「가라·신라 ‘결혼동맹’의 결렬과 그 추이」, 『부대사학 20호』)은 비지와 비조부를 같은 인물로 보기도 했으나 이는 음이 비슷하다는데 착안한 억측일 뿐이다. 실제 둘은 활동연대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 『화랑세기』에 따르면 비지는 비조부의 할아버지이다.

이를 보면 문노는 어머니가 (대)가야 공주인 문화(文華)다. 한때 문화에 대해 『화랑세기』는 북국왕녀(北國王女)라고도 하고 야국왕(野國王)이 바친 여자라는 두 가지 설을 소개하면서도 북국왕녀일 것이라는 해석을 붙이고 있다. 북국(北國)이란 필사본 문노 전을 보면 법흥왕이 (대)가야를 남·북국(南·北國)으로 나눴다 하니 이 때 북국을 말한다. 야국(野國)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자세하지 않다.

위 인용문에서 궁금한 것은 왜 문노의 계보를 따지는 자리에 선혜가 등장하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글자가 탈락되는 바람에 그러한 의문을 풀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실로

난감한 일이다. 다만 문맥으로 보아 5글자가 탈락한 공간에는 어떤 식으로든 선혜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문노의 증조모 얘기를 하다가 난데없이 선혜 황후 폐위 사건으로 이야기가 옮겨가겠는가?

위 인용문은 선혜가 황후 자리에서 내쫓긴 계기를 묘심사(妙心事)라 하고 있다. 이는 묘심지사(妙心之事)의 줄임말이다. 묘심은 물론 선혜와 사통한 인물이다. 따라서 묘심사란 ‘묘심과 관련되는 일’ 정도로 풀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묘심사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다만 묘심이라는 남자와 사통한 사건으로 인해 황후 자리에서 쫓겨났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고 한 바 있다.¹⁷⁾ 지금 이 순간에도 묘심사가 과연 ‘묘심과 사통한 사건’ 인지는 여전히 자신이 없다. 한데 이러한 묘심사가 다른 곳에서는 ‘천주사(天柱事)’로 표현되고 있다. 13세 용춘공 전이다.

- ① 황아(皇我)는 치술(鷄述)의 원한을 갚기 위해 두 공[벌지(伐知)와 덕지(德知) - 인용자]에게 무(武)에 힘쓰도록 하고 보기공에게는 의(醫)에 힘쓰도록 했다. 선혜후의 천주사(天柱事)가 발생하자 보기공은 태의(太醫)로 후(后)를 보호함으로써 욕되는 일 없이 재난에 그치도록 했다. 그 까닭에 후가 홍기(洪器)를 봉사(奉事)로 삼아 기오공(起烏公)을 낳았다. 아마도 홍기의 노력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선혜후(滯分后), 곧 비처왕비인 선혜 황후가 욕을 당하는 일없이 재난에 그쳤다는 함은 필자 본 다른 관련 기록을 검토할 때 묘심처럼 복주(伏誅)되지는 않고, 황후 자리에서 내쫓긴 것으로 그친 것을 말한다. 목숨을 건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선혜후의 천주사가 발생하자 보기공은 태의로서 (선혜)후를 보호하여 복주를 면하게 함으로써 목숨을 지켰으며 다만 황후 자리에서 내쫓기게 하는 것으로 그치게끔 했다.”고 풀어쓸 수 있다. 전후 문맥으로 보아 천주사가 선혜황후를 폐위시킨 사건을 지칭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천주사는 문노 전에 나오는 묘심사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천주사의 실체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천주(天柱)’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천주사(天柱事)는 묘심사(妙心事)가 그렇듯이 천주지사(天柱之事)를 말한다. 따라서 천주사는 ‘천주와 관련되는 일 혹은 사건’이 된다. 천주사의 실체를 밝히거나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천주의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천주(天柱)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묘심의 아버지 천주공(天柱公)과 관련 있을 수

47) 김태식, 앞의 책, 90쪽.

있다. 이 경우 천주사는 ‘묘심의 아버지 천주공과 관련되는 일 혹은 사건’이 된다. 그러나 천주사와 같은 내용, 같은 사건임이 분명한 묘심사가 묘심과 관련되는 일 혹은 사건임이 분명한 이상 천주사의 천주를 묘심의 아버지와 관련시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첫 번째 가능성 또한 아주 내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⁴⁸⁾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가지가 남게 되는데 필자는 이것이 천주사(天柱寺)의 천주(天柱)임이 확실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천주사는 천주사라는 사찰과 관련된 일 혹은 사건이 된다. 여기서 천주는 아마도 사건이 일어난 장소라든가 그 원인을 가리키는 듯하다.

지금까지 다른 선혜황후 폐위와 관련되는 사건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사금갑 설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통 관계로 인해 복주(伏誅)된 묘심은 삼국유사에서 궁주와 함께 복주되었다고 한 내전분수승(內殿焚修僧)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사금갑 사건의 주요한 등장인물이 궁주가 아니라 왕비임을 필사본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같은 사금갑 사건을 전하고 있는 『삼국유사』와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중에서도 후자의 두 문헌이 더욱 실상에 가깝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또 필사본을 통해 왜 선혜황후 폐위 사건이 『삼국유사』를 비롯한 후대 문헌들에 대서특필되어 남게 되었는지도 비로소 해명할 길이 열리게 되었다. 사통 사건으로 인해 국모(國母)가 하루 아침에 폐위된 것이다. 이것이 어찌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있겠는가?

4. 결 론

『삼국유사』 사금갑 설화에 대한 학계의 종래 지배적인 견해는 불교리는 신흥 종교가 신라 전통사상(예컨대 샤머니즘)과 충돌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비처왕의 궁주(宮主)와 사통하다 복주(伏誅)된 내전분수승(內殿焚修僧)을 탄압받는 신라 불교의 표상으로 파악했던 것이며 그에 반해 일관(一貫)으로 대표되는 신라 전통사상과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종래 주장은 사금갑 설화를 내전분수승이라는 존재

48)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러한 사금갑 설화 혹은 사금갑 사건은 그 부대가 천주사라는 사찰이라는 점에서 이미 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끈 바 있다. 『삼국유사』에게 게재된 신라 진평왕 시대 천사옥대조 설화에 따르면 천주사는 진평왕 때 창건됐다고 하지만, 이러한 기록 자체가 같은 『삼국유사』 다른 기록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널리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 이 글의 후속 편으로서 천주사에 대한 고찰은 별도의 글을 준비해 두고 있다.

에 주안점을 두어 해석한데서 비롯된 것이다.⁴⁹⁾

이 설화는 주인공이 내전분수승이 아니라 궁주였다. 따라서 이 설화 핵심은 궁주의 간통과 그에 따른 죽음이었다. 한데 같은 사건(설화)을 전하고 있는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설화의 주인공은 궁주가 아니라 비처 ‘왕비(王妃)’임을 확인했다. 후궁인 궁주가 간통한 것과 왕비가 간통을 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더구나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후궁이 복주된 것과 왕비가 복주된 것도 그 차이는 왕청나게 된다. 당연히 그 사건이 신라 왕실, 혹은 신라라는 왕국 전체에 미치는 여파 또한 궁주나 왕비냐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주목한 선행 연구 성과가 안정복과 박창화가. 이 둘은 사금갑 설화를 비처왕비 선혜가 관련된 일로 아예 단정을 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필사본 『화랑세기』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다만, 필사본이 신라 당대 기록이기 때문인 듯, 훨씬 후대 문헌들인 『삼국유사』나 『삼국사절요』 및 『동국통감』에서와 같은 설화성은 전혀 없다. 더구나, 필사본은 비처왕비인 선혜가 불교승려로 생각되는 묘심(妙心)이라는 남자와 사통한 사건이 문제가 되어 황후 자리에서 폐위되기는 했어도, 후대 설화가 그런 것처럼 복주(伏誅)되지는 않고, 쫓겨나 신궁(神宮)이라는 제사시설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신궁제주(神宮祭主)가 되었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했으나 『화랑세기』 필사자로 지목되는 박창화가 다소 뜬금없이 사금갑 설화를 비처왕비인 선혜부인과 연결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화랑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화랑세기』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이를 근거로 이와 같은 과감한 주장을 들고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⁵⁰⁾

이를 통해 필사본 『화랑세기』는 학계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20세기 초반 역사가로 활약한 박창화라는 인물이 창작해 내기는 대단히 곤란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신라시대 김대문이 남긴 『화랑세기』를 필사한 그것임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방증이라 하겠다.

49) 그렇다고 이 설화가 종래 지배적인 견해처럼 불교와 신라 전통사상간의 충돌이 아니라고는 단정하기 곤란하다. 다만, 이 설화가 선혜황후 폐위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해체된 지금에는 종래 견해를 고집하기는 실로 힘들다 할 것이다.

50) 김태식, 2003, 「박창화와 화랑세기」, 『역사비평 62호』.

참 고 문 헌

『경도잡지』
 『고려사』
 『고려사절요』
 『기문총화(紀聞叢話)』
 『동경잡기』
 『동국세시기』
 『동국통감』
 『동사강목』
 『명위보(明衛譜)』
 『삼국사기』
 『삼국사절요』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열양세시기』
 『용재총화』
 『해동고승전』 『화랑세기』

- 강 세 구 1994, 『동사강목 연구』, 민족문화사.
 ————— 1996, 『순암안정복의 학문과 사상 연구』, 해안.
 권 덕 영 1989, 「필사본 『화랑세기』의 사료적 검토」, 『역사학보』 123.
 김 태 식 2003, 「박창화와 화랑세기」, 『역사비평』 62호.
 ————— 2002,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영사.
 박 종 기 1998, 「『동사강목』고려 편 검토 : 안정복의 수택본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24』.
 박 창 화 1927, 「新羅史史について」, 『중앙사단(中央史壇) 제13권』
 제12호 통권 94호.
 ————— 1928, 「新羅史について(二)」, 『중앙사단(中央史壇) 제14권』
 제2호 통권 96호.

- 백 승 총 1996, 「가라·신라 '결혼동맹'의 결렬과 그 추이」, 『부대사학 20호』.
- 신 종 원 1997, 「삼국유사 2개조 역주」, 『미천목정배박사화갑기념론』.
 ————— 1992,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 1977, 「신라불교의 전래와 그 수용에 대한 재검토」, 고려대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 재 호 1989, 「『화랑세기』의 사료적 가치」, 『정신문화연구 36집』.
- 이검국·최환 1988, 『신라수이전 집교(輯校)와 역주(譯註)』, 영남대출판부.
- 이 영 훈 2002, 「『화랑세기』에서의 노와비」, 『역사학보 176집』.
- 전 성 운 1999, 「사금갑 이야기의 수용 양상과 서술 태도」, 『한국민속학 31』.
- 정 구 복 2002, 『한국중세사학사II』, 경인문화사.
- 조 수 학 1985, 「사금갑 설화연구」, 『인문연구 제7권』 제2호.
- 조 용 중 2002, 「연산군 묘소 앞의 궁주 조씨 묘소에 대하여」, 『박물관신문』 제375호, 국립중앙박물관.
- 최 광 식 1994,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 한 영 우 1981, 『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황 패 강 1974,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국문초록

사금갑(射琴匣) 설화의 역사적 이해

- 『화랑세기』 관련 기록과의 대비 검토 -

김 태 식(연합뉴스 문화부 기자)

『삼국유사』 사금갑 설화에 대한 학계의 종래 지배적인 견해는 불교리는 신흥 종교가 신라 전통사상과 충돌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비처왕의 궁주(宮主)와 사통하다 복주(伏誅)된 내전분수승(內殿焚修僧)을 탄압받는 신라 불교의 표상으로 파악했던 것이며 그에 반해 일관(日貫)으로 대표되는 신라 전통사상과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종래 주장은 사금갑 설화를 내전분수승이라는 존재에 주안점을 두어 해석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설화는 주인공이 내전분수승이 아니라 궁주였다. 따라서 이 설화 핵심은 궁주의 간통과 그에 따른 죽음이었다. 한데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설화의 주인공은 궁주가 아니라 ‘비처왕비(王妃)’, 곧 선혜부인(善惠夫人)이었다. 사금갑 사건(혹은 설화)가 후대 기록에 대서특필된 까닭은 간통사건으로 인해 국모(國母)인 왕비가 폐위됐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필사본 『화랑세기』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다만, 필사본이 신라 당대 기록이기 때문인 듯, 훨씬 후대 문헌들인 『삼국유사』나 『삼국사절요』 및 『동국통감』에서와 같은 설화 성은 전혀 없다. 또 비처왕비가 불교승려와 사통한 사건이 문제가 되어 황후 자리에서 폐위 되기는 했어도, 후대 문헌 설화가 그런 것처럼 복주(伏誅)되지는 않고, 쫓겨나 신궁(神宮)이라는 제사시설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신궁제주(神宮祭主)가 되었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핵심어 : 사금갑, 비처왕, 선혜, 왕비, 궁주, 폐위, 신궁제주, 화랑세기

The Sagumgap tale and the queen's dethronement

Kim, Tae-Shik (YTN Journalist)

The SAGUMGAP(射琴匣) tale, written in Samgukyusa(三國遺事), has been believed to be related with a struggle between the brand-new religion, Buddhism and the traditional shamanism. In this context the Buddhism monk who was executed on charge of sex scandal with King Bichoe(毗處王)'s Gunju(宮主) has been represented for Buddhism pressed by shamanism in the Silla kingdom.

However, the opinion on the The SAGUMGAP tale is wrong. The story is focused on the Gunju, not the monk, and her execution following the disclosure of the sex scandal. The Gunju was one of the concubine ranks in Silla. But, the heroine who enters the SAGUMGAP stage is King Bichoe's queen, Sunhey(善分) in Samguksajeolyo(三國史節要) and Dongguktonggam(東國通鑑), which were written in the early Chosun kindom.

Moreover, the recently found hand-written Hwarangsegi(花郎世記), which was written by a sillian called Kimdaemun(金大問) in the early 8th century has it that King Bichoe's queen, Sunhey was dethroned on charge of illegal sexual relationship with a monk. The most shocking thing about the Sunhey's scandal is that the queen was deposed from the position, but, not executed to death as in Samgukyusa, Samguksajeolyo and Dongguktonggam. According to Hwarangsegi, the dethroned queen was expelled to the Royal shrine, Shingung(神寧), and supervised it. The once-queen Sunhey lived a new life as a priest.

Key Words : Sagumgap(射琴匣), King Bichoe, Sunhey(善分), Queen, Gunju(宮主),
Dethronement, Royal Shrine, Hwarangsegi(花郎世記)

日文抄録

射琴匣説話の歴史的 이해

— 『花郎世紀』 関連記録との比較検討 —

金 台 植(連合ニュース文化部記者)

『三国遺事』の射琴匣説話に対する学界の従来 of 支配的 이해는、そこに新興宗教가 新羅 of 传统思想と衝突する過程が見て取れるというものであった。このような脈絡で、鄙处王 of 宮主と密通して処刑された内殿焚修僧に関し、彼らが弾圧を受ける新羅仏教 of 表象であり、それに反し日官に代表される新羅 of 传统思想派が彼等を死に追いやった張本人であるとしていた。しかしながらこのような従来 of 主張は、射琴匣説話を内殿焚修僧という存在に主眼を置いて解釈することから生まれたものであった。

この説話は主人公が内殿焚修僧ではなく宮主だった。従ってその核心は宮主 of 姦通とその結果としての死であった。しかし同じ事件を記録している『三国史切要』と『東国通鑑』を綿密に検討した結果、この説話 of 主人公は宮主ではなく鄙处「王妃」、つまり善兮婦人であった。射琴匣事件(或いは説話)が後代 of 記録に大書特筆された理由は、姦通事件により国母である王妃が廃位されたためであったのだ。

このような事情は筆者が調べた『花郎世紀』においても如実に確認できる。ただ写本が新羅当代 of 記録であるためか、そのかなり後代 of 文献である『三国遺事』や『三国史切要』、『東国通鑑』に見られるような説話性は全く見当たらない。鄙处王妃が仏僧と姦通した事件が問題になり皇后 of 位から下ろされはしたものの、後代 of 文献説話と同じく処刑されることはなく、皇居から追い出され神宮という祭祀施設で祭祀を担う神宮 of 祭主になった、という意外な事実を伝えてい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射琴匣、鄙处王、善兮、王妃、宮主、廃位、神宮 of 祭主、花郎世紀

中文抄錄

从历史的角度解释“射琴匣”传说

-与《花郎世纪》的有关记录进行比较研究-

金台植(联合新闻文化部记者)

对于《三国遗事》中的“射琴匣”传说，学术界里的权威解释一般认为是反映了新兴宗教-佛教与新罗传统思想相冲突的过程。因此与毗处王的宫主私通而被诛的内殿梵修僧被解释为新罗佛教受压制的表现。代表新罗传统思想势力的“日官”势力则将佛教势力逼向了死路。这种解释关注的是“射琴匣”传说里的内殿梵修僧。

这个传说的主人公不是内殿梵修僧而是宫主。因此这个传说的核心应该是宫主的私通以及因此而被处死。但是通过仔细考察《三国史节要》和《东国通鉴》中同一事件的记录可以发现这一传说的真正主人公不是宫主而是王妃，则善兮夫人。“射琴匣”传说之所以在后代的记录中被大书特写是因为作为国母的王妃因为私通而被费。

这种情况在笔写本的《花郎世纪》中得到了充分的表现。可能因为笔写本是对新罗当时的记录，与后代的文献《三国遗事》，《三国史节要》，《东国通鉴》的传说风格有着明显的不同。在当时的记录中王妃虽然因为私通而被费，但并不象后代文献中记载的那样被杀，而只是被赶出王宫并在掌管祭祀设施的神宫作了神宫祭主。

核心词：射琴匣，毗处王，善兮，王妃，宫主，费位，神宫祭主，花郎世纪